



# 북미주 이화동창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EWHA WUAANA

[www.ewhaian.org](http://www.ewhaian.org)

E-mail: [EWUAANA@gmail.com](mailto:EWUAANA@gmail.com)

Phone: (213) 200-7371

발행인: 성시희 편집인: 조효은

동창은 이화가 배출한 보배, 우리의 생동력은 이화의 보람

2023년 6월

## 2023 Annual Conference & Tour

*Mexican Riviera Cruise*

Sep. 30~Oct. 7, 2023



# 眞善美

이화가 지향해야 할 최상의 가치 이념들을  
진(眞)·선(善)·미(美) 라는 간결한 표어로 정의한다.

풍부한 지혜와 지식,  
아름다운 덕성과 정서를 조화롭게 지닌 인성교육은  
이화가 추구하는 전인교육 이념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회가 최상의 가치로 삼아온

진·선·미는  
하늘에 속한 것인 동시에  
인간이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표이기도 하다.

# 목차

04

이사장 인사말

05

회장 인사말

06~07

의료원장 인사말

08

의대 활동소식

09

장학사업

10~11

동창탐방

12~14

조선에 파송된 의료 선교사들

15

시

16~17

간증기

18~19

2022년 총회 보고

20~21

총회 사진

22

지역 활동 보고

23

임원명단

24

여행지 안내

25

후원금 / 후원자 명단 / 2023년 총회일정

26~27

광고



### 존경하는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동문 여러분

2023, 계묘년을 맞아 박정옥 북미주동창회 이사장으로 삼가 인사 드립니다.  
작년 10월 우리들은 미국 독립 선언과 헌법이 작성되고 반포 된 역사 깊은 도시 필라델피아에서 잊을 수 없는 귀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올해 연례총회는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여러분을 모시고 Mexico Riviera Cruise 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장한 배를 타고 태평양을 향해 하며, 각종 먹거리, 오락 시설, 영화관 관람을 즐기며, 친구와 편히 쉬며 얘기를 나누고, 멕시코의 유명한 항구 방문 뿐 아니라 유용한 강의를 듣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여행이 되도록 성시희 회장님을 비롯, 준비 위원들께서 수고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뵈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화여자 대학교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온지 반 세기가 되었습니다. 그당시 저를 훈련 시키던 동대문 병원은 목동 병원으로 개원되어 30주년을 맞았고, 2019년 서울 마곡에 개원한 이대서울병원은 국내 최초의 현대화 된 의료기술과 800병실을 사용할 수 있는 대 규모의 병원으로 성장 발전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미래 의학을 선도할 여성 의학과 의사를 양성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여자 의과대학으로서, 여성 의료원 육성에 앞장 서게 되리라 믿습니다.

1887년 한국의 최초 여성전문병원, 보구녀관으로 시작한 의료원이 이토록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여성 환자들을 최첨단의 서양의학 기술뿐 아니라 환자가 최고로 존중 받는 새로운 개념의 첨단병원 - 숭고한 기독교 정신과 사랑으로 치료해 왔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북미주 동창으로, 한국인으로 자랑스럽고, 이 날이 있기 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병원 개원을 위해 여러 동창님들의 꾸준한 기도와 물질적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북미주 동창님들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국에 와서 열심히 배우고 일하며, 자녀들을 키워 이 사회에 이바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화가 배출한 보배, 한국의 보배, 더 나아가 세계의 보배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걸어온 북미주 이화 동창들의 사랑과 격려에도 감사드리며, 9월30일 California Long Beach Port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뵈옵기를 기원 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

이사장 **박 정 옥** (의대, 71)



북미주동창회 동문 여러분께,

푸른 초목이 무성해져 가는 아름다운 계절을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로 북미주동창회는 창립 23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우리 동창회는 본교 후원은 물론 북미주 전 지역에 살고 있는 동창들이 해마다 함께 모여, 강의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며 친교 하는 가운데, 선 후배간에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해 왔습니다.

2022년 연례 모임은 늦가을 11월에 역사의 도시 Philadelphia 에서 3년간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만날 수 없었던 동창들에게 뜻깊은 만남의 축제였고, 우리의 기억에 남는 귀한 추억을 남겨주었습니다. 김영미 전 회장님, 박정옥 이사장님 그리고 총회 준비위원님들의 동창회 사랑하는 봉사와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연례총회는 9월 30일(토)부터 10월 7일(토)까지, California 주 Los Angeles 의 Long Beach 항에서 출발하는 Mexican Riviera Cruise로 결정했습니다. 과거 Alaska와 New England Cruise를 통한 총회를 선호하는 동창들을 위해 세 번째로 마련한 선상 총회 모임에 많은 동창의 참석을 바랍니다. 이사회와 총회, 세미나, gala dinner는 물론 선상의 각종 오락시설과 흥미로운 performance는 잊지 못할 좋은 Cruise 여행으로 기억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선택 관광에도 많이 참석하셔서 동문님 개개인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Puerto Vallarta는 황금빛 모래사장 해변으로 유명하며, 화려한 타일 지붕으로 그림책 속의 도시처럼 아름답고, 사랑과 정열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하는 축제의 도시이고, 영화 “Night of the Iguana”의 촬영지이며, 할리우드 스타들의 휴양지로도 유명한 멕시코에서 가장 인기 있는 Cruise 기항지입니다. 그외 펠리칸이 반기는 Cabo San Lucas에 들려, 수많은 동굴을 구경하는 것도 좋고, 태평양의 진주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해변 도시로 나들이하며, 현지 토산품 시장과 역사적 유물을 관람함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북미주 동창님들과 귀 가정 위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오는 9월 30일 Mexican Riviera Cruise에서 반갑게 만나 뵈기를 기대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

회장 **성 시 희**(물리, 70)

# 이화의료이야기와 이대혈관병원



안녕하셨어요?

인사를 드리려니 작년에 필라델피아에서의 따뜻한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모두 건강히 잘 계시겠지요?

저는 작년에 동창 여러분들을 뵙고 와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국땅에서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계신 모습에 우선 너무 감동하였고, 그 마음 깊숙이 ‘이화’가 자리하고 있음에 처음 뵙기도 했지만 그냥 일순간에 하나가 됨을 느꼈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훌륭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뵈면서 반성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했고, 지금은 많이 그립기도 합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제가 알고 있는 설익은 이화의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많이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해드렸던 이화의료원의 136년의 역사이야기인 이화 의료 이야기가 출간에 대한 소회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간에 앞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뉘우침”이었습니다. 100주년이었던 1987년에는 앞으로 나아가기 바빴고 새 병원을 오픈하면서 우리의 정신인 “보구녀관을 복원하자”라는 결정에도 그 뜻을 모으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기만 한 마음으로 역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작하였습니다.

기록을 정리하면서 느낀 몇 가지 소회가 있습니다. 우선, 역사에는 미래에 대한 교과서 같은 답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고민을 했고 그에 대한 좋았던 혹은 나빴던 결과의 기록이 역사입니다. 릴리안해리스 기념병원은 설립당시 자금난에 허덕이었고, 병원을 지어놓고도 거의 1년간 개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역경을 딛고 오픈한 이 병원은 당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던 최고의 병원이 되었습니다. 역사출판위원회가 출범할 당시에 이대서울병원 개원초기였고 정말 많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의 시련 후에 최고의 병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우리의 역사 기록 속에 있었기에 버틸 힘이 두 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 중반에는 자금난으로 릴리안해리스기념병원은 세브란스와 합병할 위기가 생깁니다. 이 역시, 로제타 홀과 그의제자들인 현덕신, 유영준, 정자영, 윤보명, 안수경 선생님 등 동대문병원 선생님들이 힘을 모아 결사적으로 병원을 지켜 내었고 조선여자의학강습소라는 새로운 결실을 가져 왔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원을 구성하는 많은 분들의 생각은 당연히 다양하고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역사 앞에서는 모두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 보면 대학병원의 격에 맞지 않은 코로나거점병원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한말 진료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분들을 찾아서 헌신했던 우리의 이웃사랑의 설립이념을 함께 이해하고 나니 한마음이 되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거점병원의 선택은 우리 의료원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던 결정이었다고 앞으로 그려질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또한 역사는 우리의 격을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비록 이화 의료원이 이 땅에 처음 시작하였을 때 만큼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함을 반성도 하지만 136년을 이어온 자랑스런 역사에 우리 구성원들은 자긍심을 가져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화의료원의 현재의 소식을 좀 전하겠습니다. 이대목동병원은 작년에 설립한 이대비뇨기병원이 다른 대학병원에서 해결 안 되는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비뇨기 환자들의 4차병원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배 확장된 이대 여성암병원은 제2의 도약을 하고 있고 이와 맞물려 이대목동병원이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대서울병원에는 최고의 시스템과 최고의 시설이 있습니다. 전공의 없이 모든 필수의료 진료과가 365일 24시간 전문의가 당직하고 있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헬리콥터가 쉽게 이착륙을 할 수 있고 수술방과 응급실, 중환자실이 서로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최고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이대혈관병원이 6월 초 개원을 합니다. 이대 뇌혈관병원, 이대대동맥혈관병원이 그것입니다. 서남권역을 넘어 제주, 부산등등 전국의 시간을 다투는 혈관질환 환자들이 헬기를 타고 이대서울병원으로 전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대서울병원의 뇌혈관병원, 대동맥혈관병원의 성공할 수 있도록 동창여러분이 함께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창 여러분  
두서없이 글을 적었지만 가족같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고 한국에 오셨을 때 발전된 의료원을 하루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유 경 하** 올림

**필수의료과 교수 24시간 365일 당직의 최고의 시스템**

**이대혈관병원**

**분리된 원스톱 진입로**

**국내 최고의 의료진**

**충분히 확보된 혈관병원 별도의 중환자실 운영**

**최고의 최신 장비 (하이브리드 수술방)**

**전국 1위의 응급의료센터**

**헬리포트 시스템 유일하게 헬리콥터 이착륙이 용이한 병원**

#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의과대학 동문 여러분께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 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꿈틀거리는 계절을 맞아 선후배 동문 여러분께 인사를 올립니다. 2023년도에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의과대학 동창 회장을 맡게 된 1976년도 졸업생 오유심 입니다.

우선 북미주 곳곳에서 의과대학과 의료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최선으로 지원하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동문들과 전임 회장님, 이사장님 그리고 임원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2년 이상 Covid Pandemic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의과대학 연례모임을 취소 해야 했으나 드디어 2022년 11월에 필라델피아에서 여러 동문들과 또 서울에서부터 시간을 내어 동참해 주신 유경하 의료원장님, 심기남 교수님, 그리고 권정희 팀장님과 더불어 오랜만에 아름다운 만남과 추억을 만들었고 이대병원의 역사, 이대서울병원 그리고 목동병원에 대하여 많은 정보와 경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들을수 있었던 아주 좋은 유익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유경하 의료원장님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그리고 의료원 설립의 역사와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의료원의 발자취를 동영상상 통하여 보며 들을 때에 그동안에 많은 동문들의 끊임없는 헌신과 수고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스크랜튼 여사가 1887년에 여성을 위한 한국 최초의 여성 병원인 보구녀간 설립으로 시작되어 이대 의과대학, 이대 서울병원, 목동병원으로 크나큰 발전 성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북미주에 계신 모든 동문께서 큰 관심과 지지를 하여 주시어 의과대학과 이대서울병원 그리고 목동병원이 더욱 더 발전해가며 계획하고 계신 모든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드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23년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7박 8일 동안 있을 Mexican Riviera by Carnival Panorama cruise로 LA 남쪽 항구 Long Beach를 떠나 Mexico 해안 휴양도시인 Puerto Vallarta, Mazatlan, Cabo Lucas를 관광하게 되는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의과대학 동창회 연례모임에 모두 초청하오니 많이 참석하시어 다시금 아름다운 만남의 기쁨과 추억을 만들어 주시고, 계속하여 좋은 친선 관계를 이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5월에 여러 동문께서 이대 서울병원과 목동 병원에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료원을 더 자세히 보고, 알고 배우는 좋은 방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136년간 한국 땅에 뿌려진 씨앗이 이제 성숙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가며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의료원을 볼 때에 참으로 자랑스럽고 뿌듯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계속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그리고 의료원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며 하시고 자 하는 계획에 참여및 협조를 해 주시는 동창회가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의과대학 동창회의 communication을 위하여 이메일방을 만들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좋은 매개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메일주소는 jhdkim1004@gmail이고 많은 동문들의 이메일이 돌아왔으므로 up to date 한 이메일 주소를 위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평안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의과대학 동창회

회장 **오 유 심** (의대, 76) 드림

##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 장학금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www.ewhaian.org



###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 장학금

북미주 이화동창회가 창립 초기부터 계획하고 실시해 온 장학금을 2023-2024에도 계속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유학 온 이화동문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시작했던 장학금이, 북미주 거주 동창 자녀 대학(원)생으로 자격 범위를 넓혔고, 윤영희(의대 70)동문이 매해 본교 의대 재학생 2명에게 만불을 지급하고, 최경숙(영문 66)동문 가족이 한인으로서 북미주가정에 입양된 한인 입양아 대학(원)에게 만불의 장학기금을 마련하여, 본 동창회가 매년 지급하는 만불과 합해져 더욱 증가된 장학 기금이 되어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 장학금은 북미주에 사는 이화 졸업 동문 유학생, 자녀, 한인입양 대학생들을 격려하고, 한인으로서 자긍감을 가지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Community college부터 대학원까지 북미주 거주 이화인 가족과 한인 입양 대학생에게 열린 이 장학금이 앞으로 더욱 많은 장학기금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동문의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올 해에도 장학금을 지불할 계획으로 있어오니 주위에 알려 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hshorack@san.rr.com.에 연락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서 제출 마감일은 8월 31일이고, 필요한 서류는 지원서, essay, 추천서, 성적증명서, 등록증이며, www.ewhaian.org에서 download 하시면 됩니다.



Dear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I am greatly honored to receive the EWUAANA scholarship this year. Your financial assistance has lightened my burdens and allowed me to concentrate on my studies. I am most grateful for your belief and support, and I would like to thank you for choosing me.

I am currently a second-year of master's student in piano pedagogy at the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and I will be graduating in May 2023. After graduation, I plan to pursue my doctorate in collaborative piano which combines piano performance, accompaniment, and pedagogy. As I have been studying in the U.S., I experienced a great deal of diversity by sharing music, including collaborating with other musicians and performing at nursing homes or libraries. And I have also enjoyed volunteering in the local library as an artist-teacher. These great opportunities I have in the U.S. allowed me to expand the horizon in my musical field.

Thanks to you, I am one step closer to achieving my goals. Thank you again for your support. Your generosity has inspired me to help others and give back to the community. Moreover, I promise that I will work harder and study harder to be able to support a future student like myself. Sincerely,

Ming Kim 김민경 (2018, 피아노 졸업)

# 타오르는 태양처럼 뜨겁게 살아가는

## 멋있는 이화인 권오화 동문 (가정, 61)



“인생은 그리움이고 사랑이여라  
삶은 열정이여라  
하루하루 인생의 시작의 날이요  
마지막 날처럼 열정 속에 산다면 불가능은  
없으리라”

어느 시인의 표현대로 인생을 동녘에 타오르는 태양처럼 뜨겁게 살아가는 멋있는 이화인- 북미주동창회를 통해 만난 권오화 동문과의 20여 년간의 인연을 나는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북미주동창회 연례 모임에 참석한 이화인이라면 권오화 (가정, 61) 동문을 이렇게 기억하리라. 새벽 기도회에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는데 빠지지 않고, 이사회에서는 낭랑한 목소리로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의견 발표를 서슴치 않으며, 흥이 많아 노래와 라인댄스 등 Gala dinner 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나게 즐기며, 나이보다 훨씬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멋진 동문으로.

어느 친한 친구는 권 동문이 고회를 맞았을 때 축하의 시를 희사했다. “당신의 미소는 우리 모두의 쉼터, 실패자의 등판에 용기를 업혀주고, 아픈 가슴 기대는 어깨로 실컷 울게 내버려 두는 곳, 모두 껴안고 잠재우는 편한 자리”. 이 시 한 구절이 늘 환하게 웃으며 남을 배려하며 돕는 그녀를 잘 그리고 있다.

시카고 지역에서 한인 여성회, 문화회관, 이대 지역 동창회 등 봉사를 함께 꾸준히 해 온 한 후배는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여성” 으로 권오화 선배를 꼽는다. 책임감이 강해서 일 처리가 똑 부러지고, 게으르기 쉬울 땐 부지런히 일하도록 권면하며, 화를 낼 일도 마음속에 오래 품지 않으며,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녀의 너그러움에 존경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권 동문은 친구나 지인, 교우들을 자주 불러 애찬을 나누는 가운데, 지란지교의 시간을 가지며, 또한 신실한 그녀의 믿음생활 속에서 늘 교회 목회자를 열심히 보필하며, 그녀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많은 교우가 은혜를 받는다고 조용히 들려준다.

사대부속고등학교 졸업 후 이화여대 가정학과를 1961년에 졸업한 권오화 동문은 일찍이 유학 와서 자리 잡은 오빠의 초청으로 1973년 시카고에 정착, 사업을 하며 살아왔다. 1976년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교육목적으로 제일 좋은 공립고등학교가 있는 시카고의 북쪽 Park Ridge에서 47년간을 살아오고 있다. 딸이 16세 때에 Park Ridge junior Miss와 Illinois Junior Miss로 뽑혔고, 그 후에는 Illinois Junior Miss Judge도 하면서, 권 동문 가정은 한때 이 마을의 유지가 되기도 했었다. 권 동문은 1984년부터 2004년까지 20여년간 Wilmette Post office에서 운영진 (Acting superintendent, Job Instructor, Decoration & Party Organizer)으로 일하기도 했다고 들려준다.

꽃을 좋아하는 그녀의 정원에는 여러가지 꽃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피고, 줄을 지은 무궁화 꽃 나무가 담을 이루고 있으니, 정말 평화로운 안식처가 아닐까 싶다. 권 동문은 아침 저녁으로 꽃과 야채들 자라는 모습을 보면 한없이 행복해진다. 뒷 뜰에는 쭉, 불란서 미나리, 참나물, 불로초, 부추, 쪽파, 달래, 깨, 마늘, 오이, 톳나물 등 거의 없는 것이 없다. 요즘처럼 건강한 life style 을 찾고 있을 때, 그날 그날 집에서 정성드려 기른 야채를 따서 신토불이 (身土不二)의 요리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니, 은근히 언젠가 그댜에 초대받기를 기다려 본다. 본인이 손수 준비해서 베푸는 파티에서의 그녀의 우영 볶음과 새우 튀김은 일품 요리란다.

권오화 동창은 1962년 형부의 소개로 고 김부식 부군을 만나 1년 연애 후, 1963년 5월에 결혼해서 그림같은 정원에 연못이 있는 예쁜 집(배우 최무룡과 김지미씨 옆집)에서 신혼 살림을 차렸다. 그곳에서 이듬해 아들과 1966년에 딸이 태어났고, 아내를 인형처럼 예뻐하는 부군은 깨질세라 부서질세라 애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 안과 밖의 살림을 모두 맡아 했었다. 평소 남편께서는 그녀를 “the best wife in the world”라고 했으며 자녀들 또한 “the best mom in the world”라고 인정하며 31년을 행복한 가정생활을 해왔다고 회고하며 그녀는 아주 아쉬워하는 표정이다.



부군께서는 경기고등학교와 서울상대 경영학과 졸업 후 정부에서 국영 기업체에 수여하는 full scholarship으로 MBA 과정을 마치고, 대한중석 외국부에서 일 해 왔다. 부군께서 1966년에 영국 London지사로 발령받아, 권 동문 가정은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영국에서 2년을 살다 1968년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1969년에 다시 일본으로 발령받고, 남편이 동경지사에서 5년간 근무하는 동안에 그녀는 아들(5살)과 딸(3살)이 유치원에 가 있는 동안에는 일본 요리와 꽃꽂이(이케바나) 공부를 해서 국제 면허증도 받았다고 한다. 재미나게 이야기하는 그의 얼굴에서 이 모두가 얼마나 젊은 날의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음을 과히 짐작해 볼 수 있다.

권오화 동문이 현재 신실한 믿음 가운데 여러면으로 봉사자가 된데는 가정에서 부터의 뿌리 교육이 뒷받침하고 있다. 의사이며 선교사이신 할아버지와 감리교 목사이신 외 할아버지, 그리고 사업가이신 아버지와 여성 운동가 이신 어머니의 삶이 해맑은 권오화 동문에게 꾸준한 영향력을 주어 온 것이라 생각된다. 모태 신앙이신 어머니의 올겐 반주 찬송가를 들으며 유년 주일학교를 다닌 권 동문은 4남매중 둘째 딸로 고모 셋, 이모 셋과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언니 동생까지 모두 이화학당 부터 이화여고, 이화여대 졸업생이니 그 맥 여인네들은 모두 이대 동창생들이며 신실한 기독교 여성들이다.

그래서 권오화 동창은 일찌기 중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 재단을 쌓았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주일학교 교사로 가르치며, 성가대에서 봉사했다. 대학교 여름 방학 때면 교회를 통해 농촌 계몽운동을 다니며, 성경공부와 재봉, 요리를 가르치며 전도했다고 한다. 결혼해서 영국과 일본을 다니며, 외국에서 화려한 생활을 하는 동안 잠깐 헤이해진 그녀의 믿음생활이, 1994년 55세에 뜻하지 않은 남편과의 사별로 슬픔에 처한 그녀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다가오며, 신실한 믿음생활로 돌아가게 만들었다고 고백한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없이 숨낼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진솔히 본인의 마음을 들어낸다

권오화 동문은 은퇴 후 시카고 여성회 합창단 창단, 단장으로 34년째를 이끌어 오며 또 여성회 line dancing class 창설자로 수요일에 모여 열심히 운동하고 있단다. 북미주 동창회 발기이사로 2001년에 시카고에서 창립된 후 해마다의 연례총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 권오화 동창의 지극 정성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매달 금요일이면 30명씩 모이는 사대부고 동창회 모임에도 Madam Kwon으로 알려진 권 동문의 활약을 과히 생각해볼 수 있다. “나는 사람에게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전 세계에 친구’가 많습니다. 친구가 나의 재산입니다.” 라는 그녀의 말대로 통장 속에 잔고는 쓰면 쓸수록 비어가지만, 덕(德)과 운(運)은 나누면 나눌수록, 베풀면 베풀수록 커지고 쌓여간다는 말이 생각나며 이것이 잘 사는 방법이 아닌가 싶다.

정의감에 살고, 사랑과 정에 혼신을 다함을 삶의 좌우명으로 실천하는 권오화 동문은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니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삽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 와 있는 요즘 아침에 눈 뜨면 부활이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 사망인지라, 하루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한 마음입니다.”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재능을 아끼지 않고, 전도에 혼신을 다 해 바치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와 딸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작정한 그녀에게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아 나의 마음도 평화로워진다.

편집부



## 섬김과 나눔 정신으로

# 조선에 파송된 의료선교사들을 기리며



오늘날 눈부시게 발전한 이화여자대학교 최첨단 의료기술의 서울병원이 있기까지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우고 지켜왔을까?” 1885년, 교통 수단이 수월치 않던 그 당시, 미국 동부에서부터 조선까지, 기차로 배로 몇 달의 장거리를, 기독교 전파와 여성교육을 위해 작은 나라 조선에 온 선교사들을 이화의 동창으로 깊이 생각해 본다. 아무 것도 알려 지지 않은 먼 나라, 여성은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조선에 선교 기금을 모으고,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기독교 전파와 함께 인권,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간파하고, 이를 실천에 옮긴 미국 감리회의 미래 지향적인 사상과 실천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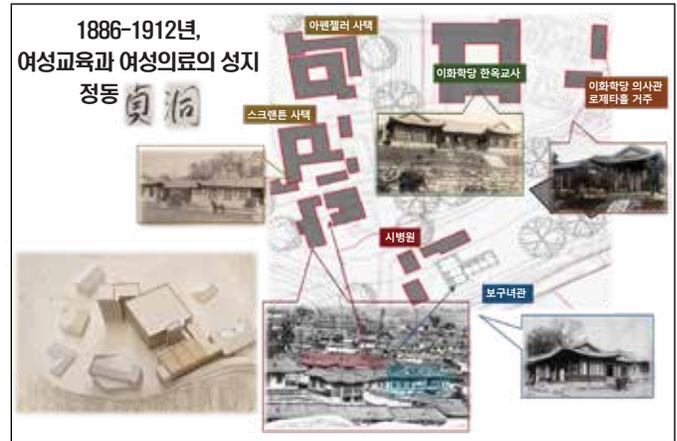
한 명의 학생으로 시작하여 25만여의 졸업생을 배출한 이화는 이제 한국 뿐 아니라 세계로까지 진출한 세계인의 여성 교육에 이바지하고 있다. 섬김과 나눔 정신으로 불모지인 조선 땅을 찾아와 개척자의 정신으로 열정적으로 헌신한 선교사님들을 추모하며, 그들에게 보은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이 글은 2022년 11월 총회 workshop에서 유경하 의료원장님께서 동영상을 통한 이화의료원의 시작과 발전에 대한 기록 (General Commission on Archives and History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workshop과 “Scranton - 어머니와 아들의 조선 선교 이야기(이덕주 지음)”에서 발췌한 것을 모았다.

### Mary F. Scranton and William B. Scranton –

1885년 Appenzeller, Underwood, Heron 가족들과 같이 한국 기독교 (개신교) 선교의 문을 열고 터를 닦은 개척자들이다. ‘떠나온 고향보다 나은 본향’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고향을 떠나 낯선 한국 땅을 찾아온 Mary F. Scranton과 아들 William B. Scranton으로 한국 교회 선교역사는 시작되었다. 이들은 ‘동료’ 선교사로서 때로는 같은 공간에서, 때로는 다른 지역에서 선교사역을 추진하면서, 서로 북돋아주는 ‘협력 선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삼십대 중반에 남편을 여의고 Mary Scranton은 외아들이 미국의 명문 예일대학교와 뉴욕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을 때, 아들을 한국의 개척 선교사로 나가도록 설득하였다. 그리고 자신도 53세 나이로 아들과 함께, 여선교회 개척 선교사로 향년 77세로 별세하기까지, 선교사들에게는 ‘어머니’로, 한국 교인과 일반인들에게는 ‘위대한 부인’으로 불리우면서,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제자의 길”을 살아왔다.

당시 서울 정동의 미국 감리교 여성해외선교회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의 소유지는 1886-87년에 여성교육과 의료의 성지가 되었다. 1885년 6월 William Scranton은 조선 입국 직후 정동에 마련한 자신의 집에서 진료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1886년에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이 Mary Scranton 선교사에 의해 설립되었다.



메리 스크랜튼은 정동 뿐 아니라 동대문에서도 또 다른 여성을 위한 선교, 교육, 진료의 공간을 구축하기도 하였고, 동대문에 있는 스크랜튼 하우스에는 그 당시 조선에 있던 여성선교사, 의료선교사가 모여 사는 집이었다



사진 undated 동대문 선교자구 풍경 미 감리교 해외여성선교회 (W.F.M.S.) 소유의 건물을 표시하여 릴리안 헤리스 기념병원과 볼드윈 진료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GCAH 2601-2-3;7\_172, 2601-2-3;7(scan)\_113

아들(William)은 육으로만 아니라 영으로도 효자였다. 그가 개척 선교사로 시작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외로운’ 삶을 살아야 했던 배경에는 ‘어머니의 기도와 말씀’이 있었다. Scranton 모자가 한국에 와서, 한국인들에게 보여 준 사랑이 그런 ‘온전한 사랑이었다.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얻어 맞아 거의 죽어가던’ 위기의 조선 땅에 와서 ‘치료하여 살리고, 가르쳐 세우는’ 일에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했던 Scranton 가족의 ‘선한 사마리아인’ 사역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잊어서는 아니 될 ‘생명 이야기’로 한국교회 역사에 남게 되었다.

본인의 사택에서 진료를 시작한 William Scranton은 1886년 독자적인 병원 부지를 매입한 후 수술실, 환자 대기실, 사무실, 약제실을 갖춘 병원 건물을 마련해 6월 정식으로 문을 열었고, 고종은 이듬해 시병원(Si Pyung Won)이라는 이름을 하사하였다. 이후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밖에도 시약소를 세우며 의료선교활동을 지속하였고 성서번역 사업에도 공헌을 하였으나 1905년 감리교 감독으로 부임한 친일 노선의 Harris 선교사와 갈등을 빚었다. 결국 Scranton은 1907년 감리교 선교사직을 사임하고 대한의원에서 환자 진료와 의학교육 사역을 진행하였다. 1909년 노환으로 사망한 Mary Scranton은 원하던 데로 양화진 외국인 묘소에 안장되었다. 이후 William Scranton은 서울과 평북 운산금광, 충남 직산금광 등에서 진료활동을 펼치다 1916년 중국 대련으로 거처를 옮기며 한국 생활을 마감하였다. 이듬해 일본 고베로 다시 주거지를 옮긴 Scranton은 1922년 3월 23일 자택에서 숨을 거두었다.

**보구녀관**은 여성이 남자의사가 있는 병원 출입을 꺼리는 풍속 때문에 여성들의 병원 이용이 원활하지 않자, Scranton 여사는 미국 감리교 여성해외선교부에 여의사 파견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1887년 Meta Howard 의사가 조선에 파견되어 정동 시병원의 한 구역에서 진료를 시작한 것이 보구녀관의 시작이다. 보구녀관은 이듬해 11월 이화학당 옆 한옥 한 채를 새로 구입해 병원으로 개조하며 독립병원으로 거듭났다. 조선 왕실은 조선 여성들을 위한 이곳의 활동을 인정하며 1888년 12월 ‘보구녀관’(모든 여성을 구원하는 기관)이라는 이름을 하사하였다. 보구녀관에서는 여성과 어린이 환자 진료 뿐만이 아니라 기초 의학교육 및 한국 최초의 간호교육기관인 간호원양성학교를 설립 운영하였다. 여성 대상 진료와 여성 의학교육의 출발점이었던 보구녀관은 1913년 공식적으로 문을 연 동대문의 릴리안 해리스 기념병원에 통합되었다.

**Meta Leonora Howard** — Chicago 여자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감리회 여성해외선교부 North Western 지회 파송으로 한국에 도착한 첫번째 여자 의료 선교사이다.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인 1887년 10월 31일부터 “시병원”에 여자용 진료실을 마련하고, 여성들의 진료를 시작하며 보구녀관이 시작되었다. 이후 2년간 한국에 체류하며 하루에 75~100명의 환자를 치료하였으나, 건강 악화로 1889년 9월 귀국하였다.



PO GOO NIJO GOAN, W. F. M. HOSPITAL IN SEOUL, KOREA.

**Rosetta Sherwood Hall —**

1889년 Pennsylvania 여자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890년 10월에 Meta Howard 후임으로 서울에 도착, 보구녀관에서 진료를 시작하였다. ‘여성을 위한 의료사업은 여성의 손으로’라는 구호 아래 최초의 여성의학교육을 실시하였다. 이화학당 학생 5명과 일본 여인 1명으로 의료보조 훈련반(Medical Training Class)을 조직하고, 기초적인 의학훈련을 시켰다. 이 중의 한 사람인 김점동(박에스터)은 미국 유학의 길에 오르게 되었다.

평양 지역의 의료선교사 William Hall과 결혼한 Rosetta Hall은 1894년 5월 남편과 함께 선교를 목적으로 평양으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남편이 결혼 2년만인 1894년 11월에 발진티푸스에 걸려 사망하자, 잠시 귀국했다가, 1897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이듬해 평양에 부인병원인 광혜여원을 열었다. 또 그 안에 Edith Margaret 어린이병동을 설치하고 1900년 1월 어린이병동 방 한 칸에서 맹인 교육을 정식으로 시작하였다. 광혜여원은 1922년 평양의 또 다른 병원인 기흥병원, 장로교에서 운영하던 평양제중병원과 통합되어 평양연합기독교병원이 되었다. 1923년 릴리안 해리스 기념병원(동대문부인병원)의 책임을 맡았으며, 1928년 9월 조선여자의학강습소를 시작하며 여성 의학교육에도 힘을 쏟았다.



1890년 25세의 조선에 왔을 당시의 로제타홀  
로제타 셔우드 홀은 1889년 펜실베이니아 여자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890년 10월 14일 메타 하워드의 후임으로 서울에 도착하였다. 다음날부터 보구녀관에서 진료를 시작했으며 1892년 물드원진료소를 개설하였다. 그해 선교사 윌리엄 홀(William Hall)과 결혼한 로제타 셔우드 홀은 1894년 5월 남편과 함께 선교를 목적으로 평양으로 이주하였다. 11월 남편이 사망하자 귀국했다가 1897년 다시 한국에 와서 평양에 에디스 마가렛 기념진료소를 개설하였다. 1923~26년 동대문부인병원의 책임을 맡은 그는 조선여자강습소 개원을 주도 하는 등 여성의학 교육에도 힘을 쏟았다. 1933년 은퇴하고 미국으로 돌아갔으며 1951년 뉴저지주 오션 그로브에서 사망하였다. GCAH #38:1070\_002



1935년 의료사역을 마치고 돌아간 고향 리버티에서 70세의 로제타홀

1933년 은퇴 후 미국으로 돌아갔으며, 1951년 New Jersey의 Ocean Grove에서 사망하였다. 아들 Sherwood Hall은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한 결핵 전문의로 황해도 해주에 해주요양병원을 설립하고, 크리스마스 썰(1932년-1940년)을 발행해 결핵 퇴치기금을 모았다.

## 조선에 파송된 의료 선교사들

**Mary M. Culter** — 1888년 Michigan 대학교 의학부를 졸업, 미국 감리회 여성해외선교부 Cincinnati 지부의 후원으로 한국 선교사에 임명되어, 1893년 3월 30일에 한국에 도착하였다. 이후 1912년 3월까지 보구녀관과 동대문 볼드윈 진료소를 맡아 운영하였으며, 1912년부터 1922년까지는 평양 광혜여원에서 근무하였다. 1908년에는 간호사 에드먼즈와 함께 보구녀관 간호원양성학교 설립과 책임을 맡았다. 1931년 한국에서 첫 여자 감리회 목사로 안수를 받았고, 현역에서 은퇴 후에는 미국에서 직접 포드 차를 공수해서 이동진료를 하면서 새로운 의료모형을 개척하였다. 1935년 감리교 선교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목사로서 독립적인 선교활동을 전개하다 1939년 미국으로 돌아갔다.



커틀러 역시 로제타 홀과 더불어 45년간 조선에서 활동하며 조선 여성 의료의 기틀을 만들었는데 로제타 홀이 여의사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면 커틀러는 간호 교육의 어머니로 불리어 진다.

**볼드윈 진료소**는 미국 감리회 여성해외선교회가 여성 진료의 확대를 위하여 1889년부터 동대문 지역의 진료소 설립을 촉구하다가, Scranton 여사가 확보한 약 2천여평의 넓은 선교 부지에 예배당과 함께 건립하기 시작하여 1893년 3월 14일 개소되었다. 미국 Cleveland의 Baldwin 부인이 한국여성운동과 한국여성의료사업을 위하여 희사한 돈으로 진료소 기금이 마련되었기에 이를 기념해서 볼드윈 진료소로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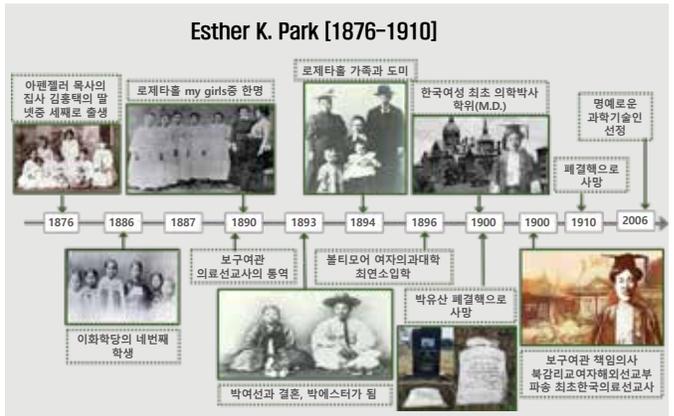
**Lillian N. Harris** — 1897년 Philadelphia 여자의학교를 졸업, 미국 감리회 여성해외선교부 Cincinnati 지부의 지원으로 한국에 파송되어 보구녀관에 근무하다 1898년 5월 볼드윈 진료소로 옮겨갔고, 1901년 광혜여원에서 근무했다. 1902년 5월 16일 귀국을 하루 앞두고 평양에서 티푸스로 사망하였다. 1912년 동대문에 새로 설립된 병원은 조선에서 의료사역에 힘쓰던 중 사망한 그녀를 기리고자 “릴리안 해리스 기념병원”으로 명명되었다.

**Emma Ernsberger** — 1897년 Cincinnati, Ohio의 로라 메모리얼 여자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 감리회 여성해외선교부 Cincinnati 지부로부터 1899년에 한국에 파송되었다. 1901년 4월까지 보구녀관에서 근무하다 볼드윈 진료소를 전담하였다.

1904년 8월부터 1905년 8월까지 안식년을 보내기 위해 미국에 돌아가 미국의 여러 주를 순회하며 조선의 여성 병원 건설이 필요함을 설교했고, Mrs. Cowen의 후원으로 여성병원 건설이 성사되었다. 새 병원은 언스버거가 한국에 돌아온 후부터 바로 건설을 시작했는데 언스버거는 병원이 완공되기 전인 1910년 말/미국으로 돌아갔고, 병원은 1912년 완공되어 1913년 6월 9일 봉헌식이 거행되었다.



**Esther K. Park (김점동)** — 1890년 이화학당 학생이던 박에스더는 보구녀관 Rosetta Hall의 통역과 의료보조 활동을 하며 의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화학당, 보구녀관에서 꿈을 키운 박에스더는 1893년 박여선씨와 결혼한 후 미국으로 유학의 길을 떠났다. 1900년 볼티모어 여자의대를 졸업,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가 되어 조선에 돌아왔다. 귀국 후 평양 광혜여원, 보구녀관을 비롯해 여의사의 손길이 닿지 않는 지방에서까지 진료활동을 펼쳤으나 1910년 4월 13일 폐결핵으로 사망하였다.



**Mary S. Stewart** — 1911년 Philadelphia 지부에서 서울로 파송된 여성 의사였다. 릴리안 해리스 기념병원은 스투어트의 병원이라고 소개될 정도로 오랜기간 병원장의 책임을 맡았다. 1915년 당시 병원은 Dr. Stewart, Naomi Anderson 간호원장, 간호사 9명과 수습직원 4명, 간호원 양성소 졸업생 1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Amanda F. Hillman** — 1911년 한국에 입국, 보구녀관 책임의사로 근무하면서 이화학당 학생들의 건강도 돌보았고, 한 해 동안 입원환자를 받지 않고, 간호사 한 명과 진료소에서 총 3,350명의 환자를 치료하였다. 정동 보구녀관에서 진료한 마지막 의사가 되었다.

**Bernita Block** — 1926년 Michigan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27년 한국에 파송되어 1935년까지 릴리안 해리스 기념병원에서 근무하였다.

詩

이혜리 (사생, 60)



## 80대 인생

해야할 일은 끝이 없다.  
 일어야 할 책도 자꾸 쌓인다.  
 보고싶은 영화나 책도 수두룩하고  
 가고싶은 곳은 왜 그리 많은지.  
 하고싶은 공부는 목록이 길고  
 도와주고 싶은 사람도 자꾸 생긴다.

전에는 다 할 수 있을것 같았다.  
 오늘 못해도 내일, 또 모래..  
 그러다 고개를 번쩍 들어보니..  
 내가 언제 이렇게 멀리 왔지?  
 주섬주섬 겁이 들인다.  
 가당찮은 꿈일랑 접어야겠다.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나이.

친구가 떠났단다.  
 지난 주에 만났는데.  
 어느 날 누군가 똑 같이 말 하겠지.  
 내가 죽었다고.  
 나는 슬프지 않다.  
 두렵지도 않다.  
 한 없이 편안한 자유를 느낀다



詩

이지연 (의대, 67)



## 만남과 이별

세상에 슬픔보로 만남의 시작  
 부모형제 배필 친척 친수  
 푸르던 들판 나무 꽃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세상 삶 축복  
 허나 이별이 따릅니다  
 애뜻한 정 미련  
 아픔다움 이 슬픔으로  
 신연 그리움 회한

참 의미는 주님 과 만남  
 주님께 의탁 기도 드림이  
 정녕 행복 한 삶이 겠지쇼  
 길이 쇼 진리쇼 생명이신 주님  
 구원의 손길로 이끄시어  
 서로 손잡고 이해와 사랑으로  
 아픔다운 맘으로 살게 하소서



# 나의 생애 세 번의 결단



박향자 (가정, 66)

작년 기독교방송의 “내가 매일 기쁘게” TV간증프로그램 시간에 남편이 지도하는 우크라이나 천사 합창단과 함께 출연할 기회가 있었다. 이 대담을 준비하면서 80여년 내 일생을 되돌아 볼수 있는 뜻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나는 해방 일년 전 1944년에 한국의 남쪽 항구 도시 여수에서 태어났다. 사업가이신 아버지와 교회 권사이신 할머니, 7남매 중 장녀로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자라게 되었다. 특별히 할머니께선 내가 너무 귀한 첫 손녀라 애기 때부터 등에 업고 교회에 다니셨고, 철부지 내가 교회당 마루바닥을 기어다닐 때면 담임 목사이신 김상두 목사님(나중에 시아버님이 되심)은 어린 나의 모습을 보며 빙그레 웃으셨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에서 주일학교에 다니며 믿음생활을 할 수 있었다. 더욱 축복인 것은 서울로 유학해서 이화여중에 합격, 6년을 크리스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이화여대 가정학과에 진학하여 계속 신앙교육과 대학 생활을 보람 있게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한 마음이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관심사요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결혼문제가 나에게도 예외 일 수는 없었다. 우리가 대학 다닐 시기에는 남편감의 선호도가 의사나 변호사 직업이 우선 순위였고, ‘목사’라는 종교 지도자는 기술직 다음으로 순위가 매겨지는 시대였다. 나 역시 목사 사모가 되는 선택은 절대 피하고 염두에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나의 유아기 때부터 인연이었던 고향 교회 담임 이시던 김 목사님 집안과 우리 집과의 오갔던 인연은 말이 씨가 되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시아버님이 될 목사님은 우리가 결혼하기 일년 전에 천국으로 가셨는데, 아들이 결혼하지 못함을 아쉬워하시면서, 어릴 때 보았던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결혼했으면 하는 뜻을 유언으로 남기셨다는 것이다. 그때 아들은 서울 음대 작곡과를 졸업하고 기독교 방송국에서 PD로, 서울여대에서 음악 강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던 때였다.

나는 대학 4학년이라 그의 프리포즈를 받았을 때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대를 이어 목사가 될 확률이 높다는 나의 염려도 결국 친정 어머니의 적극적인 후원과 사업적인 기질을 가진 그의 성격으로 나는 결혼을 승낙했다. 외모적인 판단으로 안심하고 승낙한 나는 중심을 보시고 태중에서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놀라게 되었다. 곧 “우연은 없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인 것을 후에야 깨달은 것이다.

1966년 2월 대학을 졸업하고, 5월에 결혼을 하면서부터, 내 인생 세 번의 큰 결단을 내려야 하는 삶이 시작되었다. 결혼 후, 음악학원 사업과 유치원, 합창단 등 각가지 음악 활동을 하던 중, 남편은 1971년 12월에 합창단을 인솔하고 미국으로 연주를 떠났다. 이것이 미국 이민자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나 역시 한국의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떠나야 하는 나의 생애의 첫 번째 결단 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려운 학생비자 수속을 해서 다음 해인 1972년에 미국행을 결단할 때 한 살과 두 살 된 아들과 딸을 시어머님께 남겨두고 떠나야 했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생활터전을 위한 수단으로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인 최초의 운전학교를 설립, 열심히 가르쳤다. 또한 많은 수강생들에게 전도하여 교회로 인도할 수 있었다. 어려운 이민생활 가운데서도 열심히 성가대 지휘자로서 봉사하고, 신학공부를 시작했다. 한국에서의 의무적이고 타성적인 미지근한 신앙에서 뜨거운 체험적인 믿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중 남편은 교통사고로 위기일발의 시점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목적과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온 세상 사업을 포기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 신학교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것도 본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시어머니께서 그를 낳기 7년 전부터 집 앞 뽕나무 밭 뽕나무 아래에서 서원기도 하신 것의 응답이 뒤늦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나에겐 미국 온지 5년 만에 또 다시 두 번째 큰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어려서부터 부친 목사님의 힘든 목회를 보며 자라온 남편은 결코 목사 되기를 거부하여, 일찌감치 신학교를 빠져나와 몰래 음악대학에 들어갔단다. 나 역시 사모가 될까봐 피해서 선택한 결혼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권적으로 그 길로 몰아 넣으셨다. 감사하게도 이때는 많은 부흥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사명자로서의 삶을 갈망하던 터라, 순종하는 마음 속에서 그리 큰 반항 없이 그 길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늦깎이 신학생이 되어 공부하는 동안 사업 정리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안수 받은 후 1977년 첫 목회지인 미국 동부 Washington, DC로 옮기게 되었다. 7년 동안 순복음 워싱턴 교회를 시무하면서 정말 뜨겁게 열심히 목회했고, 많은 제자들을 배출할 수 있었다. 1984년부터는 뉴욕 Woodside 장로교회로 청빙받아 7년동안 목회했다. 1991년 공산주의 종주국인 구 소련이 무너지고 종교자유가 선포되자, 남편은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선교에 큰 도전을 받고 기도하던 중 선교사로 지원, 교회를 사임했다. 이미 그 때 그의 나이가 52세로 한참 목회 황금기였기에, 교계의 많은 성도들의 억측을 사기도 했다. 그보다도 나와 우리 자녀들이 받은 충격은 청천벽력 이었다.

남편의 결단은 확고했기에 나와 자녀들이 함께 가거나 아니면 기러기 가족이 될 것인지를 기로에 서서, 삶의 변화를 결정하는 생애의 세 번째 큰 결단을 해야 했다. 공산국가 러시아라는 두려움과 언어문제, 경제문제 등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교육과 불안정한 정치문제는 엄청난 부담이었다. 온 가족이 시간을 정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족이 한 마음이 되게 하셨다. 1991년 10월 우리 가족은 낯선 땅 러시아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아직 모든 것이 불안정한 초창기의 어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그 반면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많은 보람과 효과적인 여건이 아닐 수 없었다. 모스크바 중심부의 대학교 강당을 빌려 교회를 세우고 음악학교 학생들을 초청했다. 성가대를 조직하여 찬양을 가르치고, 설교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자, 많은 갈급한 심령들이 수백 명 모여들었다.

특히 러시아 천사 합창단(교회성가대)을 통하여 러시아 군부대 선교를 할 수 있었고, 또 공산 치하에서 신학교육을 받지 못한 러시아 목사들을 교육시키고, 군 장교들에게도 신학교육을 시켜서 33명에게 목사 안수(11명은 군목 안수)를 받게 했다.

이들에게는 복음적인 신학교육은 물론 가난함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돕는 일도 선교의 한 몫을 담당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모일 때 마다 먹을것과 생필품을 제공하고, 선교비를 모금하기 위해 1년에 한 두차례 한국과 미국을 순회 공연해야 하는데 필요한 준비와 그 뒷 감당은 당연히 내 몫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모와 엄마의 역할도 함께 해야 한다. 지난 30여년의 러시아 선교지 삶을 기록하기엔 너무나 지면이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특히 선교지에서의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선교 15년이 되던 해에 남편은 암 선고를 받고, 생명의 위험으로 선교를 포기 할 뻔 했다. 어려운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없이, 오직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기적적으로 치유되었다. 하나님은 노년의 선교사역을 더 확신있게 할 수 있도록 신유 은사까지 주셨으니 감사할 뿐이다. 또 한편 하나님은 그를 위해 일하는 만큼 도우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깨닫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지난 해 1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온 후 2월에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나서 러시아 선교의 문이 막히고 말았다.

그러나 죽는 날까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기로 결심한 남편 목사님은 전쟁 중에 고통 받고 목자 잃은 우크라이나 성도들을 위하여, 선교지를 옮겨서 수시로 방문, 말씀과 물질로 돕고 있다. 러시아에서의 경험을 살려 우크라이나 천사 찬양단을 훈련시켜, 작년10월에 이미 한국을 방문하여 찬양을 통해 전쟁 종식과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 기도요청을 호소한 바 있다. 이 찬양사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이다.

아직도 쉬지 않는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과 사명을 위해 나는 함께 도와야 하기에 이를 위해 끊임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이다. 돌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

# 2022년 연례 총회 보고



김영미 (교육심리, 72)

팬데믹으로 얼어 붙었던 세상이 다행히 풀리기 시작하여, 북미주동창회도 3년만에 이화인들의 연례모임을 갖을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다. 2022년 늦가을 오색의 단풍을 만끽하며, 11월 2일부터 6일까지 4박 5일간 미국의 유서 깊은 필라델피아에서 연례총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첫째 날 (11/2):** 오후 3시가 되며 Philadelphia 시내 Doubletree hotel by Hilton에 북미주 여러 곳에서 비행기, 기차, 버스, 자동차로 동문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등록 후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는 오랜만의 해후로 담소를 나누는 선후배들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즐거움 그 자체였다.

저녁 7시에서 8시까지 이사회를 뜻있게 마쳤다. 사정상 박정옥(의대 71) 이사장을 대신해서 최경숙(영문, 66) 전 이사장이 개회선언으로 시작, 장학부, 편집부, 예배 선교부 보고가 있었고, 장명주(의대, 77) 의과대학 동창회장의 의대 활동 및 이대서울병원 후원금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2023년 이사장으로 박정옥 동창과 회장으로 성시희 동창의 공천 및 인준이 있었다. 성시희 차기회장은 2023년 연례총회를 Mexican Riviera Cruise로 계획한다고 발표했다. 그 시간 때 맞춰 장시간 비행기 여행을 마치고 도착하신 본교 유경하 의료원장님, 심기남 사회공헌부장님과 권정희 팀장이 도착하셨다.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총회 참석하는 북미주동창들 개개인을 위해 특별히 준비해 오신 정성의 선물 전달식을 가졌다. 동문 한분, 한분의 이름이 새겨진 key chain과 이화를 상징하는 bag 을 받으며 이화인들은 너무 세심하게 정성을 드린 특별한 사랑의 선물에 감탄했다.

**둘째 날 (11/3):** 아름다운 가을 날씨에 낭만적인 Trolley를 타고 미국 역사의 가장 상징적인 지역

으로 향했다. 미국 독립 선언문이 선포되었고, 미국의 헌법이 제정된 Independence Hall과 미국을 상징하는 자유의 종을 비롯하여 역사적 사적이 많은 Old City tour를 뜻있게 했다. 오후에는 Philadelphia Museum of Art로 옮겨, 기념으로 북미주동창회 단체 사진을 찍고, Museum café에서 자유로이 점심 식사를 한 후 여유로운 작품 감상의 시간을 즐겼다. 저녁 식사후 의과대학 북미주동창회가 유 원장님을 모시고 계획된 연례모임을 가지는 동안 많은 동문들은 자유시간을 이용해 호텔 근처에 있는 Academy of Music, Kimmel Center를 tour로 즐겼다.

**셋째 날 (11/4):** 버스로 Lancaster에 있는 평화로운 Pennsylvania Amish Village를 둘러보았다. 삼백년 전 미국에 도착한 이들이 Amish 전통을 지키고 살고 있는 마을에서, 검소한 생활과 단순한 의복을 입으며, 발달한 기계문명에 의존하지 않으며 자급자족하고, 전원생활을 하며, 노동, 겸손, 가족과 시간 보내기등을 삶의 기표로 한다는 안내자의 설명을 들으며, 잠시 우리들은 깊은 생각에 잠겨 보았다. 그리고 유명한 Smorgasbord, Shady Maple에서 Dutch style Buffet로 점심 식사를 하고, Lancaster에 있는 이천명을 수용하는 Sight & Sound Theater에서 다윗의 일생에 대한 장관의 성서 연극을 관람할 수 있어서 감동을 받았다.

**넷째 날 (11/5):** 오전에 북미주동창회의 진수인 Workshop 시간을 가졌다. 첫 강의는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박사학위 과정의 장수용 강사님이 “우리 생활 속의 인공지능”에 대한 흥미로운 강의가 있었다. 두번째 강의는 이대서울병원 의료원장이신 유경하 원장님께서 “이화의료원은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웠을까?” “언제 만들어졌고

어떻게 지켜왔을까? ”란 주제로 구한말 격동의 정동에서 1885년 3월 서양의학의 시작부터 변천사를 동영상과 함께 상세히 설명해 주셨다.

오후 버스로 Longwood Garden tour 가는 길에 Margaret Kuo’s 식당에서 중화요리로 점심을 맛있게 들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Longwood Garden에 도착한 동문들은 사계절마다 특유의 볼거리로 알려진 이 곳에서 가을을 만끽했다.

호텔로 돌아와서 저녁 6시 30분부터 총회 및 Gala Dinner가 시작되었다. 심재희(체육, 90)동창의 재치 있는 사회로 2부 연예프로그가 진행되며 동문과 부군들의 솜씨있는 노래와 흥겨운 음악에 맞춰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다섯째 날 (11/6):** 안정옥(의대,73) 예배/선교부장과 김명미 동창(의대, 67)의 세심한 준비로 아침 9시에 주일 예배를 은혜롭게 드릴 수 있었다. 그동안 단기 선교 생활을 해 온 성시희(물리, 70) 동문이 “성도의 바른 삶의 자세”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그후 참석한 동문들의 2022년 연례총회에 대한 진솔한 평가회 시간을 가졌다. 처음 참석한 동문들의 반응이 모든 program에 긍정적이며 좋았다는 찬사를 표했다. 꾸준히 참석해 온 많은 동문들에게도 새로운 동창을 만난 기쁨을 간직하며, 4박 5일간 Philadelphia

에서의 2022년 연례총회가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게 되기를 바란다.

팬데믹이 아직 지나지 않은 시기여서 여행에 완전히 자유스러울 수 없었던 이번 연례총회는, 참가 동문들의 인원은 줄었으나 대신 오붓한 숫자로 모든 순서들을 재미나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아침마다 새벽예배로 시작하고 마지막 날 주일 예배로 마무리함에 너무 감동적이라는 어느 부군의 말씀대로, 15~20명 동창들은 새벽마다 말씀 묵상과 함께, 그날의 뜻 있고 안전한 행사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한국에서 방문하신 유경하 이화여대 의료원장님 팀, 김정희 재정운영위원장님, 이사회를 맡아 주신 최경숙 전 이사장님, 프로그램에 수고하여 주신 장명주 준비위원장님, 조효은 편집장님, 임성숙 총무님, 하양신 회계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여러 동문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또한 멀리서 동창회에 참가하여 즐겨 주신 동창 여러분과 부군들께 감사 드립니다.

모든 일이 합하여 선을 이루었고, 항상 염려 되는 날씨는 다행히 포근했으며, 아름다운 단풍과 함께 청명한 날씨를 허락 하셨습니다에 감사 드립니다.



2022 총회 사진





지역 활동 보고

# Chicago

시카고

2022년에는 그동안의 Covid-19 pandemic의 제약에서 벗어나, 거의 3년만에 시카고 동창회의 연례총회인 '이화의 밤'을 비롯한 이화 가족피크닉 등, 여러가지 동창회 행사를 재개할 수 있었기에, 한동안 못 만나던 동문들의 반가운 만남이 감격스러웠다. 동창회 임원단은 2022년 7월 1일부터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하는 신임 이사장 유정희 동문(교육, 61)과 함께, 가을 정기 임원이사회 (2022년 9월 10일)와 성탄 연말 파티 (2022년 12월 3일, 사진참조)로 한 해를 잘 순조롭게 마감하였다. 특히, 그 동안 저녁 시간에 해 오던 성탄연말 파티를 처음으로 낮시간으로 옮겨서 주최하였는데, 대 선배님들의 많은 긍정적 호응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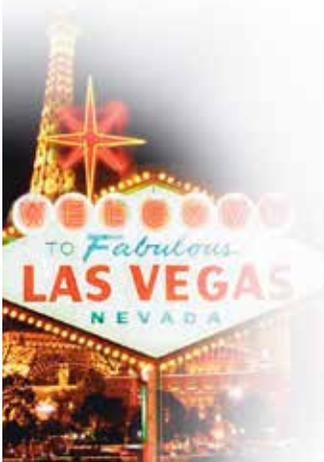
2023년도의 중요행사로는 4월 1일에 있을 봄정기임원이사회 (강사 조광동님 '시와 살아 가는 이야기'), 5월 6일의 연례총회 '이화의 밤' (강사 김선웅교수) 및 6월10일의 이화 가족 피크닉이 계획되어 있어서, 임원단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또한, 올 7월 1일 부터는 지난 5년 동안 동창회 회장을 맡아 온 오구미동문(의대, 78)에 이어, 신임회장 이혜숙동문(생물학과, 81)이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되어 큰 기대가 되고 있다.



# Las Vegas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 동창회는 두 달마다 동창 모임을 지속하고 있다.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며, 경험과 정보를 나누며, 생일도 축하하고, 친목을 다지는 점심 식사를 함께 하고 있다. 이 지역의 동창들이 건강하게, 취미생활과 여행을 즐기며, 활발하게 지내셔서, 감사한 마음이다.  
회장 정현숙 (간호, 69)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2023년도 임원 명단

직명	성명	학과/졸업년도지역	부서명	성명	학과/졸업년도지역
이사장	박정옥	(의대 71) Irvine, CA	예배, 선교부	안정옥*	(의대 73) Los Angeles, CA
회장	성시희	(물리 70) Los Angeles, CA		장금자	(간호 61) Clearwater, FL
총무	임성숙	(물리 81) Los Angeles, CA	사회봉사부	성시희	(물리 70) Los Angeles, CA
서기	이정화	(수학 81) Chicago, IL		강영숙	(약학 60) Troy MI
회계	민해성	(약학 76) Chicago, IL	서동주	(도예 82) Chicago, IL	
	하양신	(의류직물 87) Chicago, IL	최영실	(기독교 03) Los Angeles, CA	
감사	김희영	(피아노 75) Chicago, IL	음악, 연예부	강영숙*	(약학 60) Troy, MI
	윤중식	(의대 59) Albuquerque, NM		오유심	(의대 76) Chicago, IL
자문위원	홍명희	(의대 69) Chicago, IL	홍보부	김수자	(의대 68) Chicago, IL
	최경숙*	(영문 66) Galloway, NJ		김희영*	(피아노 75) Chicago, IL
	한영숙	(영문 60) Los Angeles, CA		이명숙	(도서관 66) Las Vegas, NV
	김정희	(가정 60) Chicago, IL		김소영	(불문 63) San Diego, CA
	김정희	(의대 77) Sioux Falls, SD		윤미라	(기약 60 입) San Diego, CA
	김명미	(의대 67) Los Angeles, CA		윤심재	(체육 90) Chicago, IL
공천위원	김계자	(신방 65) Las Vegas, NV	현주	(약학 55) Los Angeles, CA	
	김광자	(불문 66) Washington, DC	회원부	권오화*	(가정 61) Chicago, IL
	장명주*	(의대 77) Sioux Falls, SD		조정기	(의대 66) Madison, WI
	이풍자	(영문 62) Chicago, IL		김영자	(약학 66) Walnut Creek, CA
최경숙	(영문 66) Galloway, NJ	윤임		(의대 64) Rifton NY	
모금위원	민경해	(영문 65) Vancouver, BC	이삼희	(가정 68) Las Vegas, NV	
	권오화	(가정 61) Chicago, IL	안미사	(신방 67) Temecula, CA	
	한영숙*	(영문 60) Los Angeles, CA	권영애	(의학 64) Las Vegas, NV	
	김명미	(의대 67) Los Angeles, CA	박선영	(가정 66) Washington, DC	
재정운영위원	김광자	(불문 66) Washington, DC	김춘지	(건강교육 67) Philadelphia, PA	
	김광자	(가정 67) Chicago, IL	문경자	(건강교육 67) Philadelphia, PA	
	장우미	(의대 77) Sioux Falls, SD	한진혜	(약학 74) Minneapolis, MN	
	김평화	(사회사업 69) Calgary, Canada	전광숙	(사회학 68) Portland, OR	
회칙개정위원	김평화	(사회학 68) Portland, OR	홍순조	(사학 68) Riverside, CA	
	김정희*	(가정 60) Chicago, IL	미술 사진부	성유나*	(영문 79) Chicago, IL
	김희영	(피아노 75) Chicago, IL		한수강	(영문 65) Las Vegas, NV
	하양신	(의류직물 87) Chicago, IL		홍희	(의대 69) Chicago, IL
최경숙*	(영문 66) Galloway, NJ	김초연		(사생 60) San Francisco, CA	
교육부	김명미	(의대 67) Los Angeles, CA	민창순	(간호 84) Chicago, IL	
	이주연	(의대 59) Plano TX	서윤순	(작곡 79) Minneapolis, MN	
	김정희	(가정 60) Chicago, IL	김정순	(약학 61) Las Vegas, NV	
	김정옥	(의대 71) Los Angeles, CA	남금자	(약학 65) Los Angeles, CA	
	김정옥	(의대 71) Los Angeles, CA	김안나	(영문교육 82) Calgary, Canada	
	김정옥	(의대 71) Los Angeles, CA	박향자	(가정 66) Washington, DC	
	김정옥	(의대 71) Los Angeles, CA	홍옥선	(교심 75) Washington, DC	
	김정옥	(의대 71) Los Angeles, CA	채은화	(의대 71) Los Angeles, CA	
장학부	김정옥	(의대 71) Los Angeles, CA	편집부	김홍자*	(섬예 58입 07졸) Washington, DC
	김정옥	(의대 71) Los Angeles, CA		박선영	(가정 66) Washington, DC
	김정옥	(의대 71) Los Angeles, CA		이안숙	(의대 71) Los Angeles, CA
	김정옥	(의대 71) Los Angeles, CA		오구미	(의대 78) Chicago, IL
	김정옥	(의대 71) Los Angeles, CA		정옥지	(동양 65) Washington, DC
	김정옥	(의대 71) Los Angeles, CA		이희자	(실내장식 65) Washington, DC
	김정옥	(의대 71) Los Angeles, CA		서동주	(도예 82) Chicago, IL
	김정옥	(의대 71) Los Angeles, CA		조미라	(법대 89) Calgary, Canada
김정옥	(의대 71) Los Angeles, CA	조수경	(가정 64) Los Angeles, CA		
김정옥	(의대 71) Los Angeles, CA	양태이	(섬유예술 68) Tustin Ranch, CA		
김정옥	(의대 71) Los Angeles, CA	조효은*	(교육 71) San Diego, CA		
김정옥	(의대 71) Los Angeles, CA	최경숙	(영문 66) Galloway, NJ		
김정옥	(의대 71) Los Angeles, CA	유진순	(심리 57) Chicago, IL		
김정옥	(의대 71) Los Angeles, CA	임성숙	(물리 81) Los Angeles, CA		
김정옥	(의대 71) Los Angeles, CA	김정희	(가정 60) Chicago, IL		
김정옥	(의대 71) Los Angeles, CA	이정순	(화학 57) Chicago, IL		
김정옥	(의대 71) Los Angeles, CA	최영실	(기독교 03) Los Angeles, CA		

\* Chair person



# Mexico

2023년 북미주 동창회가 방문하는 Mexico를 간단히 소개한다. Mexico 공식 명칭은 United Mexican States 이고, 1821년 Spain으로 독립되어 세워진 나라이다. 수도는 Mexico City이고, 인구는 2021년 현재 126.7 million이다. 언어는 Spanish이지만 원주민들의 다양한 언어가 있다. 전체 인구의 90~95%가 Roman Catholic이다. 대통령 중심제이고, Mexican peso가 사용된다.

North America에 속하는 Mexico는 북으로 미국, 남으로 Guatemala와 Belize를 경계하고 있다. 서쪽으로 태평양, 동서를 잇는 Sierra Madre 산맥이 있고, 일반적으로 온화한 기후이다. 태평양을 끼고 있는 해안은 tropical 기후이고, storm이 3월에서 12월에 있으며, 북서쪽은 건조한 날씨이다.

Oil 생산국 중 하나이며, exotic fruits, 야채등을 수출하지만,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이다. 대부분 Mexican은 Spanish와 Amerindian 후손인 “mestizos”이다. Ameindians은 사회적으로 격리 되어 왔고, 빈곤하다. 남성이 대부분의 사업가이고, 여성들의 정치 진출이 많지 않다. 높은 비취업율이 주요 사회 문제이다. 2021년도 기준 미국 인구의 19%, 62.6 million이 Hispanic이고, California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Hispanic (38%)이 거주하고 있다.

## 가족의 역할

가족과 친척이 구심점을 이루어, 경제적 뿐 아니라 정서적, 도덕적 지원을 한다. 친척들이 가까운 곳에서 살며, 한 집에서 여러 세대가 같이 살기도 한다. 중요한 결정은 가족과 친척이 상의 결정하고,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Mexican의 대부분이 Catholic 신자이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례식, 결혼, 장례 등 다양한 의식과 수호 성인의 날, “죽은자의날”과 같은 축제는 가족이 함께 모여 지낸다. 15세 소녀가 치루는 성인식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날 중 하나로 보낸다.

가정 내에는 성별에 따른 역할이 있다. 아버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어머니는 자녀양육, 음식, 청소 등 가정의 살림을 돌본다. 어머니는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지만 가정내 남자/아들의 권위가 우월하다.

## Mexican 역사 요약

Mexico는 the Olmec, the Maya, the Zapotec, the Aztec을 포함한 위대한 문명을 이루었다.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전 3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문명이 번성했다.

The Olmec 문명은 기원전 1400년에서 400년까지 지속되었고, The Maya는 많은 사원과 pyramids를 지었다. 위대한 고대 도시 Teotihuacan은 100 BC에서 250 AD에 이루어졌다. The Aztec Empire (1325~1521)는 스페인이 도착하기 전의 마지막 위대한 문명이었다. Montezuma I세는 Aztecs 제국을 확장하였다.

1521년 스페인 정복자 Hernan Cortes는 Aztecs을 정복하고, Mexico는 Spanish 식민지가 되었다.

1810년 Catholic 사제 Miguel Hidalgo가 “Viva Mexico”라는 유명한 외침으로 Mexican 독립전쟁이 시작되었고, 1811년 Father Hidalgo는 스페인 인에 의해 처형되었다.

1821년 독립전쟁이 끝나고, Mexico는 9월 27일에 독립을 선언하였다.

1846년 The Mexican-American War가 시작되어 1848년에 종결 되었다. 미국은 California, New Mexico, Arizona, Utah, and Nevada를 포함한 영토를 얻었다.

1853년 Mexico는 the Gasden Purchase의 일환으로 New Mexico와 Arizona의 일부를 매각하였다.

1985년 8.1 level 지진이 Mexico City를 강타하였다. 도시의 대부분이 파괴되고, 만명이 넘는 사망자가 생겼다.

– 편집자: 위의 글은 wikipedia를 참조하였음 –

## 후원금 / 후원자 명단 / 2023년 총회일정

이화여대 북미주동창회는 여러분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동창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히 후원해 주시는 많은 동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은 북미주 동창회 사업과 회보 출판과 배송, 장학금 수여, 모교의 발전을 위한 모금으로 쓰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은 비영리단체 {501(C)(3)}인 북미주동창회를 통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 후원금

한글이름		이사회비	\$ 100
영문이름		장학기금	\$
전공 및 졸업년도		동창회 사업 및 운영 후원금	\$
Home / Cell Phone		의료원 발전 후원금	\$
E-mail		<b>합 계</b>	<b>\$</b>
Mailing Address			

1. 이사회비는 매년 \$100.00 입니다.
2. Please make a check payable to EWUAANA

Mailing Address: 하양신 회계 (의류직물, 87)  
 Yangsin Jeon  
 724 Lacrosse Ave., Wilmette, IL 60091

### 2022년 후원자 명단

이름	전공	졸업 년도	이사 회비	행사 후원금	운영 기금	장학 기금	이대 서울병원	기타 (광고)	TOTAL	이름	전공	졸업 년도	이사 회비	행사 후원금	운영 기금	장학 기금	이대 서울병원	기타 (광고)	TOTAL	
강영숙	약학	60	100						100	안정옥	의학	73	100	500	500	500	1,000		2,600	
구광자	가정	67	100	2,500	500	300	100		3,500	오구미	의학	78	100						100	
권오화	가정	61	100						100	오유심	의학	76	100						100	
김명미	의학	67	100	200	100	100	2,000	1,000	3,500	유정희	교육	61	100						100	
김명자	약학	64	100						100	윤영희	의학	70	100	1,000					1,100	
김문자	영문	66	100	500					600	윤용임	의학	64	100	100	100	100			500	
김수자	의학	68	100	400					500	윤경희	생물	70			500				500	
김영미	교육심리	72	100	2,000					2,100	이명순	기약	70		100					100	
김영자	약학	66		100					100	이정화	수학	81	100						100	
김정혜	의학	70	100	1,000					1,100	이풍자	영문	62	100	1,150					1,250	
김정희	가정	60	100		1,000	5,000			6,100	이희복	의학	74	100				10,000		10,100	
김춘지	건강교육	67		100					100	임성숙	물리	81	100						100	
김희영	피아노	75	100						100	장명주	의학	77	100	1,500					1,600	
노복실	의류직물	71		100					100	정청자	의학	69		100					100	
문경자	건강교육	67	100	200					300	조정기	의학	66	100	100					200	
민창순	간호	82	100						100	조효은	교육	71	100	1,000		1,000			2,100	
민혜성	약학	76	100						100	최경숙	영문	66	100	500			3,000		3,600	
박근우	사회학	72	100	200					300	최민자	의학	69	100	100			1,000		1,200	
박순자	국문	67	100	500					600	최인간	간호	72		50					50	
박정옥	의학	71	100	750	1,000	250	1,000		3,100	하양신	의류직물	87	100						100	
백인혜	유아교육	66		100					100	한길수	피아노	66	100						100	
서동주	도예	82	100						100	한영숙	영문	60		1,000					1,000	
성시오	간호	69		100	100	100	100		400	홍명희	의학	69	200			1,000			1,200	
성시희	물리	71		100	100	100			300	Chicgo				2,000					2,000	
송희영	행정	85	100						100	북미주대학				1,000					1,000	
신용식	의학	63		250					250	<b>합 계</b>				<b>3,800</b>	<b>19,400</b>	<b>3,900</b>	<b>8,450</b>	<b>18,300</b>	<b>1,000</b>	<b>54,850</b>
신용자	의학	69		100					100											

### 2023년 총회 일정

크루즈 선상에서 가질 북미주동창회 이사회, 총회, 주일예배, 새벽 기도회, workshop 등의 모임 날짜와 장소 및 시간은 차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의: 성시희 회장 (물리,70)

Cell: 213-200-7371 email: ndjang@gmail.com

박정옥 이사장 (의대,71)

Cell: 714-606-6679 email: chur710@yahoo.com



**Tel: 605-275-3070**  
**Fax: 605-275-3071**

**Dr. Myung J. Cho MD. DABMA**

Medical Director

*Chronic Pain Management    Medical Acupuncture  
 Physical Therapy*

*Located in the Independent Medical Arts Building*

6709 South Minnesota Ave. Suite 201 Sioux Falls, S. D. 57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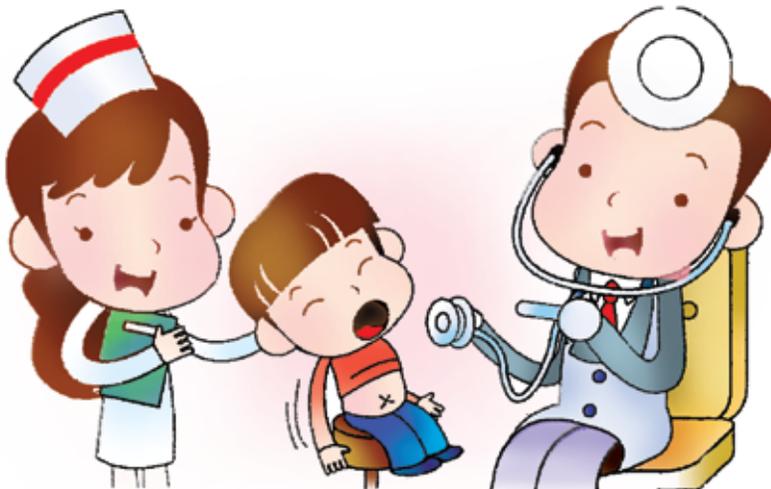


장명주 (의대, 77)



**New Light Medical Group**  
**P E D I A T R I C S**

안정옥 (의대, 73)



1716 W. Medical Center Drive  
 Anaheim, CA 92801

**T: (714) 635-0600**

**F: (714) 635-0610**

760 S. Washburn Ave. Suite 21  
 Corona, CA 92882

**T: (951) 734-8000**

**F: (951) 734-8096**

Our Exchange Number:

**(714) 447-7397**



#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국내 유일의 여자 의과대학 부속 병원인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섬김과 나눔'이라는 설립 정신 아래 산하 의료기관으로 이대목동병원과 이대서울병원, 이대여성암병원, 이대비뇨기병원을 두고 환자 중심의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픈 이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며 국민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UMC** 이대서울병원  
SEOUL

**EUMC** 이대목동병원  
MOKDONG



## 해외 동창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이화 동창 및 동창 가족을 위한 진료비, 건강검진 할인 혜택
- 숙박 검진 및 의료원 투어 프로그램 이용
- 의료원 방문 시 전담 직원 안내 및 의전 서비스
- 이상 소견 시 당일 진료 의뢰 및 빠른 결과 회신

## 상담 및 예약

- 이대서울병원 1522-7000
- 이대목동병원 1666-5000
- 웰니스 건강증진센터 02-6986-2222~4
- 이대여성암병원 02-2650-5990~3
- 웨에이징센터 02-6986-2290
- 이화의료원 사회공헌부 02-6986-5802~3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4170 Alamo St. Simi Valley, CA 93063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CANOGA PARK CA  
PERMIT # 488



동 창 은

이 화 가

배 출 한 보 배

우 리 의 생 동 력 은

이 화 의 보 람

EWHA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